

# 조선 헌종 대 문관(文官) 인사와 홍문관 관원의 위상

---

나영훈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사학 전공

adolf3@naver.com

---

- I. 머리말
  - II. 헌종 대 문과 급제자와 홍문관 관원의 인사 실태
  - III. 헌종 대 홍문관 관원의 가문 배경
  - IV. 헌종~철종 대 비공식 '홍문관원' 제수와 성격
  - V. 맺음말
-

## I. 머리말

---

조선시대 홍문관은 설립 시부터 중요한 역할과 위상이 부여된 관서였다. 시기에 따라 부침은 있었지만 조선이 망하는 순간까지 홍문관은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서의 하나였다. 특히 홍문관을 거친 관원은 핵심 청요직으로 인정받아 대부분 고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 홍문관 관원의 제수와 관직 진출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었고<sup>1</sup>, 홍문관원의 후보명단인 『홍문록(弘文錄)』<sup>2</sup>의 존재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기존 검토가 존재한다.<sup>3</sup> 이에 따라 홍문관 관원이 되는 것 자체로, 조선시대 최고의 정치엘리트로 인정되었던 당대의 상황을 알 수 있다.

---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연구과제 ‘조선시대 『홍문록(弘文錄)』과 집권세력의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수행됨(AKSR2022-C14).

- 1 남지대는 17세기와 19세기 『홍문록』 수록 인원을 직접적인 분석 대상으로 검토하여, 조선후기 청요직 가운데 대표적인 관직으로 홍문관원의 위상을 실증했다. 남지대, 「중앙정치세력의 형성구조」, 한국역사연구회(편), 『조선정치사(상)』(파주: 청년사, 1990); 남지대, 「조선후기의 ‘당쟁’과 청요직」,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한편, 임성자는 숙종 대 「홍문록」을 검토하여 그 정치적 성격을 확인했다. 임성자, 「숙종대 『홍문록』과 정치세력의 동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 2 『홍문록』의 성격에 대해서는 최승희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최승희, 「홍문록고」, 『대구사학』 제15·16권(1978). 한편, 필자는 『홍문록』, 『등영록』, 『도당록』, 「본관록」 등을 구분하여 사용했다. 『홍문록』은 「본관록」과 「도당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홍문관원을 선발하는 후보명단이다. 「본관록」과 「도당록」을 합쳐 기록한 책을 『등영록』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두기도 했다. 필자는 홍문관 후보 명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홍문록』을 사용하며, 특별히 분석 대상이 된 자료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면, 『등영록』으로 지칭했다. 또한 「본관록」과 「도당록」은 각기 필요에 따라 반드시 그 성격을 구분 지을 필요가 있을 때 사용했다.
- 3 차장섭은 조선후기 전체를 대상으로 문과 급제, 승문원 분관, 『홍문록』 입록, 당상관 승진 등의 관원이 지나는 엘리트코스의 단계를 구분하고, 별열가문들이 각 단계를 어떻게 장악했는지 검토하면서 『홍문록』 입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19세기 세도가들의 주요 요직 장악의 실태를 실증한 성과이기도 하다. 차장섭, 『조선후기 별열연구』(서울: 일조각, 1997).

앞선 연구를 토대로 조선후기의 『홍문록』의 중요성과 정치엘리트 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다만 기존 검토에서는 제도적으로 『홍문록』의 위상이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던 사실에 대한 계기적 검토까지 진행되지는 못했다. 17세기 정점을 찍었던 홍문관원의 위상은 영조 대 전랑권 혁파로 인한 당하청요직의 대대적인 개혁조치<sup>4</sup>, 정조 대 새로운 관각 아문이자 정치기구인 규장각의 신설 등으로 홍문관의 위상 역시 하락하고 있었다.<sup>5</sup> 19세기 세도정치기의 홍문관원은 여전히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음이 실증되기는 했지만<sup>6</sup>, 17세기 숙종 대에 비하여 선발 인원 자체가 과도한 측면도 있었다.<sup>7</sup>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홍문관 관원의 실제 위상은 어떠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당시의 인사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을 토대로 검증했기 때문에 수치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기도 했다.<sup>8</sup> 필자는 『승정원일기』의 인사기록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수치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하여 검토할 필요를 느꼈다. 또한 『홍문록』의 위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홍문록』 입록의 전제조건이 되는 문과 급제자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문과 급제자 내에서 『홍문록』 입록자와 비입록자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도정치기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성과가 누적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정국 동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sup>9</sup> 특히,

- 
- 4 전랑권 혁파에 대해서는 김현정, 「17~18세기 전랑제 운영과 1741년 전랑법 개정의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제101호(2022); 나영훈, 「조선후기 이조전랑의 인사 실태와 정치적 위상의 변화」, 『동양고전연구』 제86권(2022)을 참조할 것.
  - 5 우경섭, 「영·정조대 홍문관 기능의 변화」, 『한국사론』 제39권(1998).
  - 6 남지대, 앞의 책(1990).
  - 7 『홍문록』 선발 인원의 시기별 증감에 대해서는 위의 책, 156쪽의 <표7>.
  - 8 이에 대해서는 윤민경,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의 정치적 기반」, 『한국사론』 제61권(2015)을 참조할 것.

임혜련은 정치사적 시각에서 세도정치기 수렴정정이 있었던 시기의 관인 임용양상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안동김문과 풍양조문이 정국을 주도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두 가문을 중심으로 여러 세도가문들의 대립과 협조를 분석했다.<sup>10</sup> 이 연구를 통해 관인 임용과 권력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필자는 19세기, 헌종 대를 대상으로 『홍문록』의 위상과 성격을 검증하고자 한다. 세도정치기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1800년부터 1863년까지 문과 급제자만 2,000명에 달하여 한번에 검증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세도정치기가 가장 완숙했다고 판단되며 또 이 시기 급제한 이들이 철종과 고종 대 관인 생활을 지속했던 점을 고려하여 헌종 대를 대상으로 삼았다. 헌종 대(1834~1849)에는 15년간 455명의 문과 급제자가 확인된다. 필자는 이 시기의 『홍문록』 입록 인원을 중심으로 문과 급제자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이 시기 홍문관원의 인사 특징을 살펴보았다.<sup>11</sup> 이를 통해 헌종 대를 포함한 세도정치기에는 공식적인 『홍문록』에 등재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특제(特擧)’로 제수된 홍문관원도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이들의 관인적, 정치적 위상 역시 상당히 높았다. 필자는 이점을 헌종 대 『홍문록』 인사 운영의 한 특징으로 보고 집중하여 검토했다.

- 
- 9 세도정치기 정치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성과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 방성원의 연구에서 이시 연구 경향을 참고했다. 방성원, 「19세기 중반의 정치상황과 헌종의 국정 운영」,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1). 본 논문은 정치세력과 정국 동향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가 아닌, 헌종 당대의 문관 인사를 홍문관을 중심으로 검토한 성과로서 당대의 정국 동향에 대해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대체로 수용했다. 세도정치기 정치사 이해에는 최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비평 편집위원회(편), 『정조와 정조 이후』(고양: 역사비평사, 2017)를 참고했다.
  - 10 임혜련, 「순조초기 정순왕후 수렴정정기의 관인 임용양상과 권력관계」, 『한국학논총』 제41호(2014) ; 임혜련, 「헌종초 순원왕후 수렴정정기의 관인 임용 양상과 권력 관계」, 『역사와담론』 제66호(2013b); 임혜련, 「철종초 순원왕후 수렴정정기의 관인 임용 양상과 권력관계」, 『사학연구』 제110호(2013a).
  - 11 이에 따라 분석 대상은 헌종 대에 문과에 급제했으나 헌종 대부터 고종 대까지 관직 생활을 했던 이들이다.

필자는 기존 연구가 지닌 인사 기록 검토의 한계에 대한 보완, 성관 중심 분석에서 나왔던 한계 등을 토대로, 19세기 『홍문록』 입록의 성격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여 기존 19세기 정치세력과 별열들의 권력 집중 현상을 재검증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나온 헌종 대 홍문관 ‘특제’와 관련된 또 다른 엘리트 코스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세기 별열들의 정권 재생산과 관련된 이 시기 엘리트를 선발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Ⅱ. 헌종 대 문과 급제자와 홍문관 관원의 인사 실태

### 1. 승문원 분관 폭증과 의미 변화

분관은 문과 급제자가 관직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거쳐야 하는 첫 입사의 관로 가운데 하나였다. 삼관(三館)의 분관은 조선초기부터 문과 급제자 가운데 청요직을 변별하는 중요한 경로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승문원은 젊고 영리하며 문벌이 좋은 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갔고, 그 다음은 성균관에서 노성하지만 문벌이 좋은 이들을 선별해 갔으며, 마지막으로 교서관은 서얼이나 다소 문벌이 떨어지는 이들이 나가는 관로였다. 분관은 결국 이후의 관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 승문원은 다수가 『홍문록』에 등재되어 당상관이 되는 반면, 성균관이나 교서관은 『홍문록』의 입록 자체가 어려웠고, 특히 교서관은 당상관으로의 진출 자체가 봉쇄되었던 관로였다.

19세기, 헌종 대에도 문과 급제자는 분관되어 관로를 시작했다. 그런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과 달리 다소 변질되어 분관이 운영되고 있었다.

표1-헌종 대 문과 급제자의 분관과 최고 관직

구분	정2품 이상	당상관	참상관	참하관	미상	총 합계
장원급제	7	7	7			21
갑과실직		3	1		1	5
원유계자	19	19	3			41
<b>승문원</b>	<b>42</b>	<b>114</b>	<b>104</b>	<b>4</b>	<b>5</b>	<b>269</b>
성균관	1	14	56	5	2	78
교서관		6	18	2		26
미상	5	8	2			15
<b>총 합계</b>	<b>74</b>	<b>171</b>	<b>191</b>	<b>11</b>	<b>8</b>	<b>455</b>

헌종 대 문과에 급제한 인원은 모두 455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81.9%인 373명이 삼관에 분관되었다. 15명의 미상을 제외한 67명은 실직에 곧바로 제수되어 분관을 거치지 않았다. 앞선 연구에서 17세기 헌종 대 396명의 문과 급제자 가운데 290명, 73.2%가 분관된 것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다만 두 시기 분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삼관 가운데 승문원 분관자의 비중이었다. 17세기 헌종 대 127명 32.1%에 불과했던 승문원 분관자는 19세기 헌종 대 226명 59.1%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성균관 분관자는 78명 17.1%, 교서관은 26명 5.7%에 불과했는데 헌종 대에 각각 26.7%, 14.4%였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헌종 대에는 삼관의 분관자가 다소 균형적이었던 것에 비해, 헌종 대에는 분관자가 승문원으로 집중되었다.

잘 알려졌듯이, 문과의 승문원 분관은 정치엘리트로 가는 중요한 코스였다. 당연히 승문원 분관을 원하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흥미로운 것은 명확한 시기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헌종 대에는 이미 승문원으로서의 분관을 원하는 이들에 대해 분관을 변경해주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455명의 헌종 대 문과 급제자 가운데 확인되는 31명만 당초 분관처에서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높은 분관으로 변경했다. 즉, 성균관 분관자를 승문원으로 올려주거나 교서관 분관자를 성균관으로 올려주었다. 심한 경우 교서관 분관자를 승문원으로 올린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분관을 요청한 사유는 대체로 유사했는데, 역올하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혹은 유향의 내력을 지닌 고을 출신이라거나 지벌이 합당하다는 공문을 내세워 분관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러한 분관의 변경을 대체로 승인해주는 분위기였다.<sup>12</sup> 흥미로운 것은 이미 성균관에서 ‘권지’로 제수되고 수십 년이 지나 참서관이 된 이후에 분관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sup>13</sup>

이는 현종 대 이미 승문원이 문과의 핵심 분관처로서의 변별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승문원으로서의 분관이 이전과 달리 승진을 완전히 보장해주지도 않았다. 승문원 분관의 당상 승진율은 57.9%로, 전체 문과 급제자 당상 승진율 53.8%와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교서관 출신은 철저히 당상관으로서의 진출이 막혔던 17세기 현종 대와 달리, 이 시기에는 교서관에 분관된 관원이라도 사헌부나 사간원 양사에 임용되거나, 당상으로 승진하는 사례도 생겼다. 이전만큼 철저히 삼관의 분관이 관직의 경로를 결정하는 시기가 지났다는 것이다. 즉, 현종 대 역시 승문원이 주요한 관직으로

12 『承政院日記』 憲宗 14년(1848) 9월 10일, “止淵曰 分館陞降 自是故事 國子分隸人李羲俊 崔在燁 楊廷彬 李晉燁 俱是自中稱屈者 竝令槐院調用 … 元容奏曰 三館圖分之時 每因博士之未能博採 圖後稱屈者 比比有之 湖西文官金羽東 關西李廷堉 安念鎭 是槐院人之子若姪也 湖南李熙采 松京李東郁 俱有地闊云 竝槐院調用 芸閣人丁義衍 白文振 諸議稱屈 國子調用何如 上曰 依爲之”. 이 외에 다수의 사례가 있다.

13 심하게는 교서관 분관자들이 대거 승문원에 분관된 사례도 있다. 그리고 분관의 상승 사례는 이전에도 대거 있었다고 한다. 이 당시 김시원의 경우는 1841년 교서관에 분관된 이후 1858년, 즉 17년 만에 분관처를 바꾼 것이다. 이 당시 김시원은 이미 교서관관료로 임용될 만큼 참서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었다. 『承政院日記』 哲宗 9년(1858) 6월 10일, “承文院啓曰 年前成均分館人承鎭泰 芸閣分館人金始遠 任百淵 李啓根 申鍾益 李亮和 鄭昌休 陳秉燮 竝置槐院 而入於國子芸閣 公議稱屈 分館後若有似此之人 則揀擇時陞付 多有已例 上項承鎭泰等八人 竝以槐院調用之意 分付詮書 何如 傳曰 允”.

가는 코스의 일환이라는 점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비해 현격히 많아진 승문원 분관을 가지고 정치엘리트로 구분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어려워졌다.

## 2. 문과 급제자와 홍문관원의 당상관 승진 증가

문과 급제자의 분관에서 승문원의 차별성이 희석된 것처럼, 19세기 헌종 대 홍문관의 관인적 위상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조선후기 『홍문록』 입록자의 위상에 대한 선행 분석 결과가 있어 큰 참조가 된다.

『19세기 정치사』에서 『등영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효종~현종 연간 문과 급제자수는 25~26명, 「도당록」 입록자는 5명 정도로, 20% 정도만 「도당록」에 입록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과 급제자 대비 「도당록」 입록자의 추이는 서서히 증가되었다. 현종 대 17.1%, 숙종 대 20.4%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경종 대 26.2%, 영조 대 22.2%, 정조 대 26.4%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도당록」 입록자의 수효 자체도 연평균 9명 대로 증가했다. 순조 대 들어와 32.2%로 급증했고 헌종 대 40.1%, 철종 대 48.6%까지 증가한 상황이었다. 19세기 전반으로 가면 문과 급제자는 30명 정도인데, 「도당록」 입록자는 10명(순조)~16명(철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순조 대 기준으로, 33%가, 철종 대 기준으로 48%가 「도당록」에 입록되었다. 이는 문과 급제자의 절반가량이 「도당록」에 입록되어 있음을 알려준다.<sup>14</sup>

즉, 세도정치기에는 「도당록」 입록자의 수효 자체가 연평균 두세배 가량 증가한 것은 물론 문과 급제자 대비 「도당록」 입록자 역시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삼관의 승문원 분관과 같이 19세기의 『홍문록』

---

14 남지대, 앞의 책(1990), 156쪽의 <표7>.



역시 이전에 비해 변별력이 희석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 『홍문록』 입록자의 실제 관력을 살펴보면 『홍문록』의 관로 승진에 대한 영향력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도 세도정치기 「도당록」 증가 현상에 대해 “「도당록」 입록이 곧 당상관 후보집단의 기능을 했으므로 당상관의 증가를 가져왔을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지배층에서도 가문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도당록」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해석했다.<sup>15</sup>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홍문록』 입록자의 당상관 비중을 분석할 때 『조선왕조실록』만을 검토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홍문록』에 입록되지 않은 문과 급제자와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홍문록』 입록의 우월성에 대해 명확한 비교우위를 할 수 없었다. 기존 연구에서 『홍문록』의 당상관 승진율은 세도정치기를 대상으로 평균 52%가 승진했다고 분석했다.<sup>16</sup> 그런데 17세기 현종 대의 『홍문록』 분석에서는, 입록자의 82%가 당상관에 승진했음을 보여 준다.<sup>17</sup> 이 연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도당록」에 입록한 당사자는 당상관에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들을 토대로 해석하면 『홍문록』 입록자의 당상관 승진 비율이 17세기보다 세도정치기에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19세기 당상관 승진에 대한 분석을 『조선왕조실록』에 의지하여 수치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필자는 조선 현종 대 『홍문록』 입록자 16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관직 승진에 대해 『승정원일기』를 토대로 다시 분석을 시도했다.

---

15 남지대, 앞의 책(1990), 157쪽.

16 위의 책, 155쪽.

17 나영훈, 「조선 현종대 문과 급제자의 관직 경로와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제94권(2020).

표2-『홍문록』 입록자의 최고 관직(품계)

관품	1정	1종	2정	2종	3정상	소계	3정하	3종	4정	4종	5정	5종	6정	6종	9종	미상	소계	합계
인원	6	1	40	41	62	150		4	1		3	4	2			1	15	165

〈표2〉를 보면 현종 대 「도당록」에 입록된 165명 가운데, 150명(90.9%)이 당상관 이상으로 승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7세기 현종 대 82%보다 10% 증가한 수치이면서 기존 실록을 활용한 분석의 52%보다 40%가량 상승한 수치이다. 현종 대 「도당록」에 입록된 이후 당상관에 승진하지 못한 15명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일찍 사망하거나 죄로 인해 파직된 경우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9세기 현종 대에는 여전히 「도당록」의 입록이 당상관으로의 진출을 당연하게 담보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수치이다. 19세기의 「도당록」은 이전 분석과 같이 당상관의 후보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정황은 이전보다 월등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홍문록』 입록자가 이미 상당히 증가한 상황에서 『홍문록』 입록이 정치엘리트를 판명하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따라 필자는 문과 급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승진에 대한 분석을 이어갔다.

### 3. 『홍문록』 입록자와 『홍문록』 비입록자의 최고 관력 및 출신, 연령 비교

현종 대에는 『홍문록』 입록자 165명(36.3%)을 포함하여 모두 455명이 문과에 급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는 19세기 현종 대 『홍문록』 입록자의 위상을 살피기 위해, 455명을 대상으로 『홍문록』 입록자(165명)와 비입록자(290명)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3- 『홍문록』 입록자와 비입록자의 최고 관직 진출

구분	1정	1종	2정	2종	3정상	당상 소계	참상	참하	미상	합계
입록자	6	1	40	41	62	150 (90.9%)	14 (8.5%)		1	165
비입록자	5		21	25	43	95 (32.8%)	177 (61.0%)	11 (3.8%)	7	290
합계	11	1	61	66	105	245 (53.8%)	191	11	8	455

현종 대 전체 문과 급제자 455명 가운데 참상관 이상으로 승진한 경우가 436명(95.8%), 당상관 이상 245명(53.8%)이다. 즉, 문과에 급제한 이후 당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 전체 평균인 37%에 비하면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sup>18</sup> 그런데 현종 대 문과 급제자 가운데 「도당록」 입록자 165명과 『홍문록』에 입록되지 못했던 290명의 관직 진출을 비교하면 당상관 진출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홍문록』에 입록된 사람들은 90.9%가 당상관에 진출했던 반면, 『홍문록』에 입록되지 못한 290명 가운데, 95명, 32.8%만이 당상관에 오를 수 있었다.

이는 17세기인 현종 대 문과 급제자 349명 가운데 「도당록」 입록자 93명의 81.7%인 76명이 입록되었고, 비입록자 256명의 25%인 64명이 당상관에 진출했던 상황보다도 더 심화된 수치였다.<sup>19</sup> 즉 19세기에도 문과에 급제했다고 하더라도 『홍문록』에 입록되지 못한다면 당상관이 될 확률은 높지 않았다. 이들은 거의 모두 참상관은 되었지만 『홍문록』 입록이 결국 당상관으로 가는 길이라는 점은 현종 대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당상관 승진을 넘어서 '정2품 이상의 관직'으로 승진하는 측면을

18 원창애, 「문과방목에 담긴 양반사회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시민강좌』 제46권 (2010), 113쪽.

19 나영훈, 앞의 논문(2020), 212쪽.

보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sup>20</sup> 당상관으로 승진한 이후의 관료에서, 『홍문록』 입록자의 17.7%, 47명이 정2품 이상으로 승진했다. 반면, 『홍문록』에 입록되지 못한 이들은 8.9%인 26명만이 정2품 이상에 오를 수 있었다.<sup>21</sup> 19세기 헌종 대에 오면 관직의 승진에 있어서 당상관보다 ‘정2품 이상 관직’이 훨씬 적은 인원을 승진시키는 주요 관직의 지표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헌종 대 문과 급제자의 연령대와, 이들의 승진 주기별 기간 또한 각 지표마다의 연령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들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겠다.

표4- 『홍문록』과 비『홍문록』 문과 급제자의 승진별 연령

구분	급제 나이			참상 나이			당상 나이		
	입록자	비입록자	소계	입록자	비입록자	소계	입록자	비입록자	소계
평균 나이	35.8	36.7	36.4	38.0	39.7	39.1	47.0	50.3	48.3
도달 기간	-	-	-	2.55		3.32	9.05		10.98
합계	165	286	451	164	265	429	150	90	240

〈표4〉를 통해 헌종 대 문과 급제자의 『홍문록』 입록자와 비『홍문록』 관원의 승진에 따른 연령대를 이해할 수 있다. 확실히 『홍문록』 입록자의 연령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홍문록』에 입록된 이들은 평균 35.8세에 급제했고, 38세에 참상관으로 승진했으며, 47세에 당상관이 되었다. 반면,

20 2품 이상의 관료군이 갖는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윤민경, 앞의 논문(2015), 235쪽의 〈부록〉 세도정치기 정2품 이상 관원 배출 성관, 파, 가계별 배출 인원수를 참조할 것.  
 21 비입록자의 ‘정2품 이상 승진’은 후술하겠지만, 모두 홍문록에 입록되지 않았지만 홍문관 관원을 지낸 사람들이었다. 즉, 홍문관 관원이 되지 못한 이들은 누구도 정2품 이상의 승진을 이루지 못했다.

『홍문록』에 입록되지 못한 이들은 평균 36.7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39.7세에 참서관이 되었고, 50.3세가 되어서야 당상관이 될 수 있었다. 이는 『홍문록』 관원보다 1~3년 정도 더 늦은 연령에 해당 관직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서울에 주요 고관들이 집중되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한다면<sup>22</sup> 이들의 출신 지역 역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세도정치기에는 서울 중심의 인사가 다수였다는 기존 성과에 따르면 이들 현종 대 관료들의 출신지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5- 『홍문록』과 비『홍문록』 관원의 거주지 비교

구분	서울	강원	근기	하3도	북3도	미상	지방	총합계
도당록	115 (69.7%)	3	16	31			50 (30.3%)	165
비도당록	56 (19.3%)	6	27	113	87	1	233 (80.3%)	290
총 합계	171 (37.6)	9	43	144	87	1	283 (62.2%)	455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현종 대 문과 급제자의 지역별 비중은 기존의 분석과 같이 서울의 집중도가 높다. 문과 급제자 전체의 37.6%가 서울 사람이었고, 그 이외의 지역 사람들은 62.2%로 지방 사람들의 비중이 다수 높다. 여기에는 기존 연구의 지적과 같이 지방 사람들의 식년시 급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등 북방 3도의 비중이 87명(19%)로 거의 1/5에 달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22 남지대, 앞의 책(1990).

여기서 보다 주목할 점은, 서울의 집중도가 「도당록」 입록자의 경우에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도당록」 입록자의 69.7%, 거의 70%에 육박하는 이들이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 반면, 「도당록」에 입록되지 않은 이들은 233명(80%)가 지방 사람들이었다. 한편 「도당록」 입록자 가운데 북3도인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의 급제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다.<sup>23</sup> 문과 급제자에서 평안도 등 북방 인사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연구도 있지만<sup>24</sup>, 이들을 실제로 요직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분석이다.<sup>25</sup>

표6-거주 지역에 따른 최고 관직 분포

구분	서울	강원	근기	하3도	북3도	미상	지방	총 합계
2품 이상	70		1	2			3	73
당상관	78	6	22	45	21		94	172
참상관	20	3	19	89	59	1	171	191
참하관	2			5	4		9	11
미상	1		1	3	3		7	8
총 합계	171	9	43	144	87	1	284	455

- 23 세도정치기 「도당록」의 거주지 분석은 차장섭이 이미 소개했다. 차장섭, 앞의 책(1997) 155쪽의 <표3-19>.
- 24 북방 인사들에 대한 문과 급제의 추이에 대해서는 남지대, 앞의 책(1990): 에드워드 와그너(저), 이훈상(역), 「조선시대 출세의 사다리」,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지속』(서울: 일조각, 2007) 등을 참조할 것.
- 25 한편, 박현순은 평안도뿐 아니라 당대 서울과 지방의 분기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문과 급제 이후의 관료에서 서울과 지방의 차이에 대해 소개했다. 이러한 차이는 문과 시험 자체의 구분에서 나타났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현순, 「정조대 서울지방의 분화와 지방사족의 등용」, 『정조와 정조시대』(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서울: 소명출판, 2014).

〈표6〉은 지역별 문과 급제자의 최고 관직 이력이다. 서울 사람 171명 가운데 148명(86.5%)이 당상관 이상이 되었다. 이는 서울 사람이면 문과에 급제한 이후, 당상관은 거의 무조건 간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서울 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물론 문과 급제자의 당상관 진출 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지방 출신 문과 급제자의 32.7%만이 당상관이 된 것을 보면 서울의 우대를 짐작할 수 있다. 더 심한 것은 정2품 이상 관원의 비중이다. 정2품 이상 관원 73명 가운데 서울 사람이 70명(95.9%)이다. 단 3명을 제외하고는 서울 사람이 정2품 이상을 장악했다. 반면 지방 출신의 정2품 이상 승진은 단 3명, 4.1%에 그쳤다.<sup>26</sup> 평균적으로 문과 급제자 가운데 정2품 이상으로 승진하는 비율은 16.0%, 73명에 불과했다. 정치엘리트를 가늠하는 기준은 당상관이 아닌, 정2품 이상 관료로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처럼 『홍문록』에 속한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관직의 승진에서 압도적이었음은 물론 상대적으로 어리고 또한 서울에 위치한 이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 장에서는 『홍문록』과 비『홍문록』 문과 급제자에 대해서만 비교했는데 상대적으로 두 그룹 관원들의 관직 승진과, 연령, 출신지가 어느 정도 차등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19세기 헌종 대 전후의 홍문관원 제수의 한 특징에서 보인다. 이 시기 문과 급제자의 관직 승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홍문록』에 입록되지 않았는데, 홍문관 관원에 제수된 이들이 확인되었다. 이들을 비입록 홍문관 관원에서 제외하고 검토하면 관직 승진과 연령, 거주지에 있어서 보다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검토하겠다.

26 위 3명은 청주 사람 좌의정 宋近洙, 공조판서 沈宜元으로, 송근수는 은진송씨 송시열의 8대손이다. 또한 경기 여주 사람 이조판서 閔泳緯는 여흥민씨 민유중의 후손이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명벌이면서 지역에 거점을 두었던 인사들이었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장을 달리하여 이들 현종 대 『홍문록』 입록자를 포함한 문과 급제자의 성관과 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당시 세도정국에서 별열들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는 학계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분석일 것이다.

### Ⅲ. 현종 대 홍문관 관원의 가문 배경

현종 대 문과 급제자의 성관은 전체 455명 기준 147개였다. 그간 가문적 배경을 분석할 때 성관에 의지하는 한계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 지적했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성관보다는 문중이나 가계 등을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다.<sup>27</sup> 다만 성관 내의 가계 혹은 문중의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다. 4촌 이내 친족이 관직 진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시각<sup>28</sup>, 6촌 이내의 친족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시각<sup>29</sup>, 종법적 친족인 부계 8촌 이내의 친족으로 보는 시각, 또한 7~10세대 범주로 묶어서 14~20촌 이내로 연결하는 시각<sup>30</sup> 등 그 기준에 대해서는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다.

27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후기 지배 계층의 재생산 구조」, 『한국사학보』 제32호 (2008); 박현순, 앞의 책(2014), 13~15쪽.

28 조선 초기의 상황이기는 하짐반 최이돈은 법적 친족 범위를 4촌 이내로 설정했다. 최이돈, 「조선 초기 법적 친족의 기능과 그 범위」, 『진단학보』 제121권(2014).

29 나영훈은 중인 대상의 일련의 연구에서 부계친족 집단을 6촌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榜目'의 기록에 따라, 증조 이내 친족이 재종형제(6촌)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영훈, 「조선후기 관상감 관원의 친족 네트워크와 결속」, 『한국학』 제42권 제3호(2019).

30 홍순민, 「정치집단의 성격」, 한국역사연구회(편), 『조선정치사(상)』(청년사, 1990), 243~249쪽; 윤민경, 앞의 논문(2015), 192쪽.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부계친족 집단을 엮는 기준은 19세기에만 유효하다. 친족집단의 설정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19세기에는 7~10세대 이상의 현달한 조상으로 묶이는 친족



다만 최근에는 시기에 따라 친족의 범주를 달리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특히 19세기에는 부계 친족 중심의 단위로 문중의 결합이 공고해진 시기였다.<sup>31</sup> 19세기는 다양한 종류의 족보가 만연한 시기이면서 유력한 선조를 중심으로 부계 친족 집단이 강한 결속을 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가까운 친족이 아니어도 멀리는 12대조를 공유하는 친족 상호 간의 친분이 과시되기도 했다.<sup>32</sup>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가계의 범주를 홍순민이 설정한 “현달한 유력 조상과 7~10세대 차이가 나는 14~20촌으로 묶이는 규모”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성관 내에 하나의 가계를 설정하고 검토했다.

19세기 가문의 권력 장악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시도는 기존에도 여러 이루어졌다. 남지대는 19세기 전반의 정치세력 검토에서 문과 급제 점유율을 기준으로 ‘유력한 큰 성관’, ‘중간 성관’, ‘작은 성관’ 등 3개로 구분한 후 이들 성관 그룹이 시기에 따라 문과 급제, 「도당록」 입록, 당상관 승진, 비변사 당상 제수 등의 관직 진출을 분석했다. 그 결과 15개 소수 성관인 ‘유력한 큰 성관’이 문과 급제(32.2%), 「도당록」 진출(53.6%), 당상관 진출(55.7%), 비변사 당상(64.5%) 등에서 우세한 비중을 차지하며 정치권력을 과점한 사실을 실증했다.<sup>33</sup> 이후 차장섭은 조선후기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넓혀서 40개의 벌열 성관을 추출했고, 이를 토대로 문과, 「도당록」, 당상관 진출의 집중도를 검토하여 다시 한번 벌열들의 관직 독점을 확인했다.<sup>34</sup>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따라 19세기 주요 성관의 관직 진출과 그들의 권력

범주로 넓어졌지만, 임란 전후의 부계친족 집단은 이보다 협소한 범위였다.

31 권기석은 친족의 범주에 대한 시기적 다양성에 대해 지적하며 문중 단위의 방대한 종중은 19세기에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기석, 「조선후기 의관 가문의 인원 구성과 계보적 연계」, 『의사학』 제30권 제2호(2021), 226쪽.

32 예컨대, 안동김씨 김생해계의 경우, 김생해에서 ‘균’자 항렬까지 12세대 24촌까지 연결된다.

33 남지대, 앞의 책(1990), 166~194쪽.

34 차장섭, 앞의 책(1997), 133~165쪽.

집중 양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연구는 성관 분석이 지닌 한계를 인식했으면서도 여전히 '성관'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모든 순위의 1위가 '전주이씨'로 집계되고 있다.<sup>35</sup> 이처럼 성관 분석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조선시대 전체가 주요한 성관에 의해 문과나 『홍문록』이 과점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 19세기 주요 핵심 가계만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평가하는 지표로 삼기 어렵다. 예컨대 주요 5개 성관의 17세기 홍문관 과점 성관(24.4%)과 19세기 과점 성관(27.7%)은 비율상 큰 차이가 없다.<sup>36</sup>

본 연구에서는 성관 내의 특정 문중 혹은 가계를 앞선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가계'로 개념화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현종 대 455명의 문과 급제자는 147개의 성관이 확인된다. 이들 가운데 46개 성관은 현종 대 문과에 급제한 2인 이상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편의상 이들을 하나의 특정 '가계'로 설정했다. 필자는 동일 성관 내에서도 동일 선조를 공유하는 이들 가계에 속한 인원이 2명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들이 현종 대 유력한 가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이렇게 추출한 '가계'의 숫자는 모두 60개, 195명(42.9%)이 속해 있었다.

---

35 물론 전주이씨는 물론 각 문중과 계파에 대한 구분과 인식은 전제한 채 연구를 진행했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관직 진출 분석에 있어서는 성관을 단위로 검토했다.

36 현종 대 「도당록」은 307명 81개 성관으로, 13개 성관이 50%를 점유했으며, 5개 가문인 전주이씨, 연안이씨, 여흥민씨, 청송심씨, 경주이씨가 24.5%를 '독점'했다. 반면 현종 대는 537명, 81개 성관으로, 15개 성관이 50%를 점유했으며, 5개 가문인 전주이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대구서씨, 반남박씨가 27.7%를 독점해 시기적으로 특정 성관의 점유율은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표7- 현종 대 문과 급제자의 가계와 대상 수

가계	인원	가계	인원	가계	인원	가계	인원	가계	인원
<b>전주이씨</b>	<b>20</b>	<b>의령남씨</b>	<b>6</b>	<b>전의이씨</b>	<b>4</b>	<b>경주이씨</b>	<b>3</b>	<b>우봉이씨</b>	<b>2</b>
⑥무안대군파	6	남호계	4	이기준계	4	이항복계	3	이제원계	2
여양군파	3	남응익계	2	<b>배천조씨</b>	<b>4</b>	<b>벽진이씨</b>	<b>3</b>	<b>고령신씨</b>	<b>2</b>
덕천군파	3	<b>대구서씨</b>	<b>6</b>	조서계	4	이경계? 추정	3	신옥계	2
안원대군파	2	⑥서성계	6	<b>연안이씨</b>	<b>4</b>	<b>여흥민씨</b>	<b>3</b>	<b>순흥안씨</b>	<b>2</b>
복성군파	2	<b>한산이씨</b>	<b>6</b>	이정구계	3	민광훈계	3	안건지계	2
밀성군파	2	이제계	5	이수장계	1	<b>평산신씨</b>	<b>2</b>	<b>청주한씨</b>	<b>2</b>
덕양군파	1	이산해계	1	<b>경주김씨</b>	<b>4</b>	신상계	2	한세장계	2
덕원군파	1	<b>여주이씨</b>	<b>6</b>	<b>김복선계</b>	<b>2</b>	<b>순천김씨</b>	<b>2</b>	<b>신창맹씨</b>	<b>2</b>
<b>안동김씨</b>	<b>12</b>	이수회계	4	김만균계	2	김건수계	2	신창맹계	2
①김생해계	12	이훤계	2	<b>풍산홍씨</b>	<b>3</b>	<b>풍산유씨</b>	<b>2</b>	<b>해주노씨</b>	<b>2</b>
<b>풍양조씨</b>	<b>11</b>	<b>반남박씨</b>	<b>5</b>	홍수계	3	유성룡계	2	노현태계	2
③조정기계	7	박소계	5	<b>연안김씨</b>	<b>3</b>	<b>광산탁씨</b>	<b>2</b>	<b>창녕성씨</b>	<b>2</b>
조희보계	4	<b>진주강씨</b>	<b>5</b>	김제남계	3	탁이륜계	2	성희주계	2
<b>남양홍씨</b>	<b>8</b>	강최일계	3	<b>풍천임씨</b>	<b>3</b>	<b>기계유씨</b>	<b>2</b>	<b>창녕조씨</b>	<b>2</b>
②홍춘경계	8	강추계	2	임량계	3	유여림계	2	조명준계	2
<b>해평윤씨</b>	<b>7</b>	<b>진성이씨</b>	<b>5</b>	<b>은진송씨</b>	<b>3</b>	<b>한양조씨</b>	<b>2</b>	<b>용인이씨</b>	<b>2</b>
③윤변계	7	이계양계	5	송응기계	3	조위수계	2	이진충계	2
<b>동래정씨</b>	<b>7</b>	<b>청풍김씨</b>	<b>4</b>	<b>양주조씨</b>	<b>3</b>	<b>풍산김씨</b>	<b>2</b>	<b>가계</b>	<b>60</b>
③정창연계	7	김식계	4	조존성계	3	김대현계	2	<b>가계 인원</b>	<b>195</b>
<b>청송심씨</b>	<b>6</b>	<b>광산김씨</b>	<b>4</b>	<b>인동장씨</b>	<b>3</b>	<b>나주임씨</b>	<b>2</b>	<b>비가계 인원</b>	<b>260</b>
⑥심강계	6	김장생계	4	장현광계	3	임장유계	2	<b>합계</b>	<b>455</b>

현종 대 문과 급제자 기준,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한 가계를 보면 안동김씨 김생해계(12명)이며, 이어 남양홍씨 홍춘경계(8명), 풍양조씨 조정기계(7명), 동래정씨 정창연계(7명), 해평윤씨 윤변계(7명), 전주이씨 무안대군파(6명), 대구서씨 서성계(6명), 청송심씨 심강계(6명), 한산이씨 이제계(5명), 반남박씨 박소계(5명) 등이 있다. 이들 최소 2명 이상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가계의 관직 진출 정도를 보면 특정 '가계'의 권력 집중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아래 <표8>에서는 이들 가계에 속한 60개 가계 195명과,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260명 인물들의 관직 진출에 따른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표8- 현종 대 특정 가계 소속과 그렇지 못한 인물의 관직 승진 정도

구분	2품 이상		당상관		참상관		참하관		미상		총 합계	
특정 '가계'	59	30.3%	92	47.2%	40	20.5%	1	0.5%	3	-	195	42.9%
'가계' 없음	14	5.4%	80	30.8%	151	58.1%	10	3.8%	5	-	260	57.1%
<b>총 합계</b>	<b>73</b>	<b>16.0%</b>	<b>172</b>	<b>37.8%</b>	<b>191</b>	<b>41.9%</b>	<b>11</b>	<b>2.4%</b>	<b>8</b>	<b>-</b>	<b>455</b>	

<표8>에서 확인되듯이, 특정한 가계에 속한 이들은 관직 진출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자들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195명 가운데 77.5%인 151명이 당상관 이상으로 진출했다. 반면 특정한 가계가 없는 260명은 36.2%, 94명이 당상관으로 진출했다. 이는 문과 급제자 평균 53%가 당상관에 진출했던 당시 상황에서 특정한 가계에 속한 이들이 당상관 제수에도 유리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2품 이상으로의 승진은 특정 가계에 속한 이들은 30.3% 진출했던 반면, 그렇지 못한 가계 출신은 단 5.4%만이 승진할 수 있었다. 또한, 「도당록」의 입록 여부에도 '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정 가계 인원의 111명(56.9%)이 「도당록」에 입록되었고, 84명(43.1%)은 입록되지 못했다. 반면 가계가 없는 인원은 54명(20.8%)만이 「도당록」에 입록되었고, 206명(79.2%)은 입록되지 못했다. 이는 특정 가계에 속한 이들의 관직 진출이 유리했고 이들이 권력의 중심에 가까웠던 현실을 알려준다.

이러한 특정 '가계' 여부는 이들의 거주지와 연령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우선 <표9>에서는 이들의 거주지 실태를 살펴보았다.

표9- 현종 대 특정 가계 소속과 그렇지 못한 인물의 거주지

구분	2품이상	당상관	참상관	참하관	미상	총합계
<b>특정 가계</b>	<b>59</b>	<b>92</b>	<b>40</b>	<b>1</b>	<b>3</b>	<b>195</b>
서울	56	57	10	1	1	125
근기	1	11	2		1	15
하3도	2	20	19			41
북3도		4	9		1	14
<b>가계 없음</b>	<b>14</b>	<b>80</b>	<b>151</b>	<b>10</b>	<b>5</b>	<b>260</b>
서울	14	21	10	1		46
근기		17	20			37
하3도		25	70	5	3	103
북3도		17	50	4	2	73
미상			1			1
<b>총 합계</b>	<b>73</b>	<b>172</b>	<b>191</b>	<b>11</b>	<b>8</b>	<b>455</b>

특정 가계에 속한 이들은 서울에의 집중도가 높았다. 195명 가운데 125명(64.1%)이 서울 사람이었다. 이어 하3도(충청, 전라, 경상)에 21.0%, 41명이 거주했다. 반면, 가계가 없는 이들 가운데 서울 사람은 260명 중 46명(17.7%)에 불과했다. 이들의 거주지는 승진에도 영향을 주었다. 가계가 없지만 정2품 이상으로 승진했던 14명은 모두 서울 사람이었다. 가계가 없지만 서울에 사는 46명의 당상관 이상 승진율은 76.1%에 육박한다. 이는 가계가 있는 지방 사람 68명 가운데, 38명(55.9%)이 당상관으로 승진했던 것에 비교된다. 가계의 여부보다 서울 거주가 승진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이다. 물론 이는 서울에 사는 이들의 특정 가계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이 문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 14명은 청주한씨, 파평윤씨, 청풍김씨, 은진송씨, 양천허씨, 영월엄씨, 광주이씨 등 성관으로는 나름의 별열을 형성했던 일원이었다. 중요한 것은 현종 대 문과 급제자 가운데 특정 가계를 지닌 이들의 다수가 홍문관과 당상관

이상의 관직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는 서울 거주 여부가 중요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표10- 현종 대 특정 가계 소속과 그렇지 못한 인물의 승진 구간별 평균 연령

구분	당상 승진 연령(평균)	참상 승진 연령(평균)	문과 급제 연령(평균)
특정 '가계'	44.38	36.66	35.02
'가계' 없음	54.74	40.93	37.47
<b>총 합계</b>	<b>48.27</b>	<b>39.07</b>	<b>36.42</b>

특정 가계에 속한 이들은 자연히 모든 승진 구간에서의 평균 연령이 어렸다. 문과에 급제하는 것도 가계가 있는 경우 35.02세, 없는 경우 37.47세로, 2년 이상 앞서고 있으며, 참상관의 승진 역시 가계가 있는 경우 36.66세, 없는 경우 40.92세로, 4년 이상 앞서고 있다. 참상관 승진에서도 가계가 있으면 더 빨리 승진했던 것이다. 더욱이, 당상관 승진 연령을 보면, 가계가 있는 경우 44.38세, 가계가 없는 경우 54.74세로 10년 이상으로 더 큰 차이가 있다. 즉 특정 가계에 속한, 즉 일종의 문벌 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 더 이르고 빠른 승진을 하고 있음을 평균 연령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19세기 현종 대에는 특정하고 주요한 가계에 속한 이들이 홍문록과 관직 승진에 있어서도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특정 가계에 속한 이들은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서울에 거주하면서 특정 가계에 속한 이들에게 더 높은 관직을 보장하기도 했다. 특정 '가계'에 속한 이들은 더 이른 나이에 관직에 올라 승진했고 더 빠르게 승진을 해나갔던 현상 역시 확인할 수 있다.

#### IV. 현종~철종 대 비공식 ‘홍문관원’ 제수와 성격

##### 1. 「내각록(內閣錄)」의 존재와 중요성

홍문관에서는 공식적으로 홍문관 관원들이 자체 추천하는 「본관록(本館錄)」과 이들을 대상으로 의정부와 이조의 당상이 모여 추가 심사를 하는 「도당록(都堂錄)」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며, 여기에 기입된 이들을 순차적으로 홍문관 관원으로 제수하는 절차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종 대 홍문관 관원의 선정에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홍문록』에 공식적으로 입록되지 않고도 홍문관 관원에 제수된 이들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이다. 『홍문록』 입록자는 165명, 비입록 홍문관원은 44명에 달했다. 즉 현종 대 455명의 문과 급제자 가운데 45.9%, 209명 홍문관원이었고, 이 가운데 44명, 21%나 『홍문록』을 통하지 않고 홍문관원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종 대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 장에서는 특히 현종 대 문과에 급제한 이들을 대상으로 비입록 홍문관원들의 존재와 성격을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홍문록』에 입록되지 않고 홍문관 관원에 제수되는 경우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홍문록』 안에 후록(後錄)되어 있는 「내각록」 입록자로 15명이 해당한다. 이들은 공식적인 『홍문록』 입록자가 아니지만, 홍문관 관원에 제수되는 특권을 지녔다. 또 다른 하나는 ‘특제(特除)’ 형식으로 홍문관 관원에 제수된 경우로 29명이 해당한다. 우선 「내각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이들의 성격과 홍문관과의 관계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내각록」은 규장각 관원의 명부이다. 규장각과 그 관원인 각신(閣臣)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소개되어 있다.<sup>37</sup> 규장각 관원 가운데 내각록에 수록된 이들은 참서관이었던 직각(直閣)과 참하관이었던 대교

(待敎) 도합 2명이다. 이들은 정조 이전의 핵심 청요직이던 이조전랑, 예문관 한림(翰林)보다 중요한 관직의 하나로 자리했다.<sup>38</sup> 「내각록」의 작성 시점은 1792년(정조 16)이었는데, “규장각의 직함을 띤 채로 홍문관의 직책에 임명된 사람은 그 이름을 『등영록(登瀛錄)』에 기록하고, 「내각록」이라 주를 달아놓는 것을 규정으로 삼았으니 직제학 박우원(朴祐源)의 아립을 따른 것이다.”<sup>39</sup>라고 하며 등장한다. 규장각 관원이 홍문관에 임용된 관원을 『등영록』에 기록하되 별도로 「내각록」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홍재전서(弘齋全書)』에 보면 각신의 「내각록」은 정승, 군영대장, 대제학, 사가독서, 홍문관원, 초계문신, 기로소의 명단처럼 당대 중요한 관직을 수록한 책자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sup>40</sup>

정조 대 규장각 관원의 중요성과 그들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는 정조 대 규장각 관원 39명을 분석한 성과를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정조 대 규장각 관원은 요직을 거쳐 결국 판서(82%), 정승(41%)까지 오르는 이력을 지녔던 관직이었다.<sup>41</sup> 그런데 이들 규장각 관원들은 관서의 위상이 절정이었던

- 
- 37 이 시기 규장각과 각신의 위상은 한영우, 『규장각: 문화정치의 산실』(파주: 지식산업사, 2008); 김문식·신병주·김태웅, 『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을 참조할 것.
- 38 규장각의 각신은 제학 2명, 직제학 2명과 직각 1명, 대교 1명으로 총 6명이다. 이 가운데 대교는 참서관으로, 규장각 관원이 되는 첫 관직이었다. 대교는 한림과 설서를 지낸 이들 가운데, 규장각 각신 3명이 자체의 권점을 통해 선발했다. 『奎章閣志』 差除. 규장각 각신은 홍문관의 추천이나 「도당록」을 거치지 않고 규장각 구성원들 스스로 선발하고 또 이들이 그대로 홍문관 관원도 될 수 있는 만큼 공식적인 홍문관원과 차별성이 있었다.
- 39 『正祖實錄』 16년(1792) 3월 29일.
- 40 『弘齋全書』 「日得錄」文學(四), “監司守令數遞 莫基於近日 每道每邑 其餘其遞 分段書之 其中數遞邑 表以書之 命右議政尹蕃東掌其事 書成 命名曰倉氏攷 而相臣之枚卜錄 將臣之登壇錄 大提學之文衡錄 湖堂之賜暇錄 閣臣之「內閣錄」 玉堂之登瀛錄 抄啓之講製錄 耆舊之耆社帖 各有成書 其姓貫字號 除拜月日 靡不書之 使後之見者 必指點曰某也賢某也不肖入此錄者 可不自重而自慎歟”.
- 41 정상준, 「정조대 규장각 직제 및 관원 이력 분석」, 『한국교육사학』 제44권 제3호(2022).



정조 대를 지나서 헌종 대까지도 홍문관원이 되며 「내각록」에 입록되며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1792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내각록」의 명단은 『등영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확인한 가장 이른 「내각록」 입록자는 1792년 「도당록」의 말단에 수록된 남공철(南公轍, 1762~1840)과 서유구(徐有集, 1764~1845)였다. 잘 알려졌듯이, 둘은 모두 최고의 명문가 자제였다. 남공철은 의령남씨로, 대제학 남유용의 아들이다. 1792년 문과 급제 이후 「내각록」에 올랐고, 1833년 영의정에 오르기까지 한, 세도정치기 최고의 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서유구 역시 대구서씨로, 이조판서 서호수의 아들이다. 1790년 문과에 급제하고 1792년 「내각록」에 올랐고 이조판서와 우참찬, 대제학을 역임한 당대 유력한 정치인의 한명이었다.

정조 대에는 모두 6명이 「내각록」에 확인되는데, 남공철과 서유구, 이어서 김조순(金祖淳, 1765~1832), 이존수(李存秀, 1772~1829), 이시원(李始源, 1753~1809), 심상규(沈象奎, 1766~1838)가 그들이다. 김조순은 안동김씨 최고 명벌로서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순조의 장인으로서 영돈녕부사에 올랐다. 이존수는 연안이씨 이정구의 후손이자 영의정 이천보의 손자로, 본인은 이조판서까지 올랐으며, 이시원 역시 연안이씨로 이조판서까지 올랐다. 심상규는 청송심씨로, 직제학 심염조의 아들이며, 우의정까지 역임했다. 즉 「내각록」에 오른 이들은 하나하나 명문가계 출신으로 현직 고관의 부친을 두었으며 그 스스로도 최소 정2품의 이조판서 이상 절반은 정1품의 정승 반열에 올랐던 최고의 관인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이러한 「내각록」 입록자의 관인으로서의 지위는 정조 사후 규장각의 지위 하락과 함께 각신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sup>42</sup> 그런데

---

42 한영우, 앞의 책(2008); 김문식·신병주·김태웅, 앞의 책(2009)을 참조할 것.

실제 순조 대부터 고종 때까지 제수된 84명의 「내각록」 입록자들은 앞서 정조 대 「내각록」 입록자들 유사한 관인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우선 현종 대를 대상으로, 당시 「내각록」에 수록된 15인에 대한 검토를 선행했다.

여기에 속한 이들은 안동김씨 김영근(金英根, 1805~?), 김덕근(金德根, 1821~1868), 김병학(金炳德, 1825~1892), 풍양조씨 조봉하(趙鳳夏, 1817~?), 조연흥(趙然興, 1816~?), 동래정씨 정건조(鄭健朝, 1823~1882), 의령남씨 남병철(南秉哲, 1817~1863), 대구서씨 서유훈(徐有薰, 1795~1862), 우봉이씨 이우(李埉, 1807~?), 경주이씨 이유원(李裕元, 1814~1888), 남양홍씨 홍순목(洪淳穆, 1816~1884), 해평윤씨 윤치영(尹致英, 1803~?), 광산김씨 김보현(金輔鉉, 1826~1882), 파평윤씨 윤자덕(尹滋惠, 1827~1890), 전주이씨 이병문(李秉文, 1826~1888) 등 18인이다.

이들 15인의 거주지는 모두 서울이었다. 성관으로 보면 안동김씨가 3명으로 가장 많으며, 풍양조씨가 2인이었다. 이 외에 거론되는 동래정씨, 의령남씨, 대구서씨, 우봉이씨, 경주이씨, 남양홍씨, 해평윤씨, 광산김씨, 파평윤씨, 전주이씨 모두 당대 별열 가계에 속한 명벌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안동김씨를 보면 김영근은 김문행의 증손으로, 목사인 조부, 군수인 부친을 두고 있다. 안동김씨 내에서도 직접적 친족의 가계가 약하다. 이에 따라 본인도 공조참의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김덕근은 김준행의 증손으로, 군수인 부친을 두고 있다. 그래서인지 본인도 이조참판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김병학은 영의정 김홍근의 아들이다. 이들 안동김씨는 하나의 가계로 촘촘히 엮여 있으면서 부계친족 단위로 당시의 정국을 좌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어 풍양조씨 조봉하의 판서 조득영의 손자이자 판서 조병현의 아들이다. 조연흥은 좌의정 조문명의 5대손으로, 참판 조관진의 증손이기도 하다. 조봉하와는 가계가 다르지만 두 가계 모두 풍양조씨

내에서는 명문 가계라 할 수 있다. 두 가문은 세도정치기 핵심으로 꼽히는 가문이다.

이 외에도, 모두 명문 별족의 자제임을 알 수 있다. 동래정씨 정건조는 정창연/정태화의 후손이며, 참판 정기일의 아들이다. 남병철은 대제학 남유용(南有容)의 후손이자 승지 남주헌의 손자이며, 영돈녕부사 김조순의 외손자였다. 서유훈은 약봉 서성의 후손으로, 대사성 서기수의 아들이다. 이우는 도암 이재(李縉)의 후손으로, 판서 이광문(李光文)의 아들이다. 이우원은 이항복의 후손으로, 이조판서 이계조(李啟祚)의 아들이다. 홍순목은 홍명구의 후손으로, 승지 홍종원의 아들이다. 윤치영은 윤두수의 후손으로, 이조참판 윤명렬의 아들이다. 김보현은 사계 김장생의 후손으로 호조참판 김재성의 아들이다. 이병문은 정승을 지낸 이경여(李敬輿), 이관명(李觀命)의 후손이자, 좌의정 이헌구의 아들이다. 이처럼 당대 「내각록」에 올랐던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일찍부터 세가(世家)를 이루어왔고, 당대에도 고관을 지낸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 즉 오래전부터 명문이면서 현실 정치에서도 권력을 장악한 가계의 자제였다.

자연히 이들은 연령이 매우 어렸고 승진도 매우 빨랐다. 이들은 평균 27.2세에 문과에 급제했고, 28.4세에 승륙되었으며, 32.7세에 당상관에 승진했다. 이는 문과 급제자 평균 48.7세에 당상관에 제수되는 것에 비해 매우 빨랐으며, 『홍문록』에 입록된 자들이 평균 47세에 당상관이 되는 것에 비해서도 매우 빠른 승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병문, 김병덕, 윤자덕, 김보현, 남병철 등은 20대에 당상관이 되었다.

표11- 현종 대 문과 급제자의 입록 여부에 따른 관직 승진과 거주지, 평균 연령<sup>43</sup>

구분	2품 이상	당상관	참상관	참하관	미상	총 합계
도당록	47(28.5%)	103(62.4%)	14(8.5%)	-	1	165
서울 거주 비율	46(97.9%)	62(60.2%)	6(42.8%)	-		115(70.3%)
도달 연령	-	47.0세	38.0세	35.9세		
<b>비도당 입록(내각)</b>	<b>11(73.3%)</b>	<b>4(26.7%)</b>	-	-		<b>15</b>
<b>서울 거주 비율</b>	<b>11(100%)</b>	<b>4(100%)</b>	-	-		<b>15(100%)</b>
<b>도달 연령</b>	-	<b>32.7세</b>	<b>28.4세</b>	<b>27.2세</b>		
비도당록	5(2.0%)	51(20.7%)	172(69.9%)	11(4.5%)	7	246
서울 거주 비율	5(100%)	9(17.6%)	13(7.6%)	2(18.2%)		29(11.8%)
도달 연령	-	57.3세	41.0세	37.7세		
<b>총 합계</b>	<b>73</b>	<b>172</b>	<b>191</b>	<b>11</b>	<b>8</b>	<b>455</b>

이들은 이른 나이의 승진에서 알 수 있듯이, 최고관직 역시 당대 평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내각록」 인원 15명 모두 당상관에 오른 것은 물론, 이 가운데 3명은 정승의 반열에 올랐다. 또한 단 2명만이 정3품 당상관인 참의와 승지에 그쳤고, 2명은 이조참판까지 역임했으며<sup>44</sup>, 이외의 11명(73.3%)은 정2품의 판서 이상에 제수되었다. 『홍문록』 입록자 평균 90%가 당상관에 제수되고, 이 가운데 31.3%만이 정2품 이상으로 승진했던 것과 비교하면 당상관의 승진율은 유사하나 정2품 이상의 승진에 있어서는 「내각록」이 훨씬 높은 비중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내각록」 입록자는 큰일이 없으면 대체로 정2품 이상의 고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들을 알 수 있다. 이는 「내각록」이 『홍문록』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엘리트

43 비도당 입록(특제) 29인은 제외하고 분석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분석하겠다.

44 정2품에 오르지 못한 4인은 안동김씨 김덕근과 김영근, 그리고 풍양조씨 조연홍, 해평윤씨 윤치영이다. 김덕근은 1867년 사망했고, 김영근, 조연홍, 윤치영은 당대 사망으로 인해 더 높은 관직으로 오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별 후보군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서울에 사는 명문 가문의 후손이자 부친이 현직 관료로서 매우 현달한 인물의 자손들이었다. 「내각록」에는 관료로는 매우 이른 시기인 참서관부터 뽑혔고 매우 이른 나이에 빠르게 승진했으며 관직 역시 최소 정2품 이조판서까지 대부분 올랐고 이들 가운데 다수가 정승을 역임하기도 했다. 「내각록」 입록자는 세도정치기 당대 최고의 엘리트로 진출했던 이들의 명단이었다. 「내각록」은 어느 정도 다수의 가문에 열려 있었던 『홍문록』보다 세도정치기 벌얼들의 권력 장악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용도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추후 「내각록」 수록 84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2. ‘특제(特除)’ 형식의 홍문관 차출과 그 성격

헌종 대에 문과에 급제한 이들의 관력을 분석한 결과, 본관록과 「도당록」 어디에도 입록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내각록」에도 부기되지 않았는데 홍문관원에 제수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헌종 대 문과 급제자 455명 가운데 29명이 여기에 해당했다. 필자는 이들을 별도로 추출하여 검토한 결과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중비특제(中批特除)’에 해당되는 사례임을 확인했다.

중비(中批)는 조선시대 인사를 수행할 당시, 공식적인 인사방식인 단망자(望單子)를 구비하여 국왕이나 세자가 낙점하는 방식이 아닌, 국왕과 세자가 제수 대상 관직에 직접 이름을 써 넣는 방식이다. 즉, 국왕의 의지에 따라 특정 정치세력을 발탁하는데 활용되는 측면이 강했다.<sup>45</sup> 한편 중비와 같은

---

45 이근호, 「영조대 중비 제수의 내용과 성격」, 『진단학보』 제103권(2007).

국왕의 직접적 인사방식은 특지(特旨), 특제(特除), 첨서낙점(添書落點) 등의 용어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조의 공식 인사가 아닌, 국왕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이해된다.<sup>46</sup>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도 중비의 관행이 조선 전기부터 존재했으나 숙종 대부터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실태를 분석했다. 차장섭의 경우, 세도정치기 이전의 중비는 왕권 강화의 목적에서, 세도정치기에는 외척의 관직 진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로 보면 중비 제수 자체는 조선후기 일반적인 인사 관행의 하나로 이해된다.

중비의 제수는 다수의 관직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홍문관원을 중비의 대상으로 했던 점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홍문관원의 선발은 철저하게 자천에 의한 「본관록」을 거친 이후 대신들의 최종 결정인 「도당록」에 의해 후보군을 추리는 공식적인 제수 방식이 마련되어 있었다.<sup>47</sup> 이러한 방식은 적어도 17세기 현종 대까지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다.<sup>48</sup> 그런데 영조 대인 1744년(영조 20)부터 홍문관원을 ‘특제’로 제수했다. 당시 제수된 윤광소(尹光紹)는 패초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홍문관의 특제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조는 그것은 사의가 아닌 공의라며 윤광소를 거듭 패초하고 제수했다.<sup>49</sup> 이는 당대 청요직 낭관의 위상 변화와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6 윤민경, 앞의 논문(2015).

47 『六典條例』禮典 弘文館 總例, “**본관록** (참여하는 인원은 4명을 채우면 시행한다. ○ 회권 시에 동벽이 주장하며 장관은 완정하고, 교리와 수찬 각 1원은 진참한 연후에 시행한다. ○ 상에 있거나 파직되면 입록을 허가하고, 탈고신이상은 입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권점 시에, 1회 인원을 다소를 따라서 논의를 정한다.** (5원이 참여했으면 4점까지, 10명이 참여했으면 9점까지를 한도로 한다. ○ 권점할 때에, 반드시 방목에 따라 서술하고, 권점책은 상변방에 두며, 관직이 낮은 사람부터 1명씩 방에 들어가 권점한다.) **권점을 마친 후에 뽑힌 사람은 계하고, 이조에 이송한다.**”

48 나영훈, 앞의 논문(2020).

49 『承政院日記』英祖 20년(1744) 5월 27일.

홍문관은 고관으로의 승진과 정치 참여가 결정된 대표적인 엘리트 후보였던 만큼 공문에 의한 선발은 자연스러웠고 일면 당연했다.<sup>50</sup> 조선의 인사 방식에서 왕의 자의적 인사보다 문과 급제나 한림회권, 전랑자천, 『홍문록』 등 핵심 엘리트로 진출하는 관료 인사의 방식에는 이처럼 왕의 총애나 특정 권력자의 임의적 인사보다 훨씬 강한 공신력을 지닌 공문과 공의에 의한 선발방식을 훨씬 선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정조 대 들어와 시작된 특제된 홍문관원이 19세기 헌종 대에 들어오면 그 빈도가 높아졌던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sup>51</sup>

필자가 검토한 29인의 비공식 홍문관원은 『등영록』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지만 홍문관의 수찬과 교리 등의 관직을 역임한 이후 「도당록」에 입록된 인원과 마찬가지로의 관료를 견고 있었다. 이들이 처음 홍문관원에 제수될 당시의 기록을 보면 “참서낙점”,<sup>52</sup> “승전(承傳)”<sup>53</sup> 등의 명목으로 수찬이나 부교리 등에 제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육전조례(六典條例)』를 보면 “홍문관에는 「선생안」과 「등영록」이 있는

50 윤광소의 사건 이전인 1710년(숙종 36) 李喬岳을 특제로 홍문관에 뽑으려고 했으나 당시에는 승정원을 비롯하여 양사에서 규례가 『홍문록』에 등재된 이후 뽑는 것이 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물론 당시 이교악은 「본관록」에 선정되었으나 「도당록」에 오르지 못한 상태였는데, 숙종은 이교악의 문지와 학문이 좋다고 하면서 홍문관 제수를 관철하려 했다. 그러나 이교악 스스로도 거듭 관직에 나가지 않았고, 결과 적으로 당시 홍문관의 특제는 실패했다. 『承政院日記』 肅宗 36년(1710) 6월 11일. 당시의 논의에서 홍문관의 특제가 불가능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51 이근호는 그의 연구에서 영조 대 홍문관 등 삼사의 중비 비중이 증가한 현상을 삼사의 위상 약화와 연결하여 설명했다. 영조 대부터 홍문관의 중비와 특제가 시작되고 증가했던 점은 영조 대부터 낭청들의 권한이 약화된 것과 국왕 중심의 인사시행과 연결되며 그것이 19세기까지 이어 온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영조 대의 『홍문록』을 무시한 홍문관원의 중비는 인사권의 향방에 따라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용이한 구조로 만들어주었다.

52 『承政院日記』 哲宗 9년(1858) 4월 1일, “傳于趙在應曰 入直外玉堂竝許遞 前望單子入之 玉堂前望單子入之 校理任憲大 副校理李晚奎 李翔峻 修撰金羽休 許鐸添書落點”.

53 『承政院日記』 憲宗 11년(1845) 4월 19일, “吏曹 修撰趙秉夔除授事 承傳”.

데, ‘중비’로 제수된 경우에는 「선생안」에만 이름을 등재하고, 「등영록」에는 기술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다.<sup>54</sup> 즉, 고종 당대에 이미 왕의 특제인 중비로 홍문관에 제수된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옥당선생안」과 「등영록」을 통해 차이를 두었다. 특제인 경우 「본관록」과 「도당록」의 명단인 『등영록』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홍문관원의 명단인 선생안에는 기록해 두었다. 이에 따라, 헌종 대 29인을 「옥당선생안」을 토대로 검토했다. 결과적으로 29인 전원 선생안에 등록되어 있었고, 이들 가운데 다수는 이름 아래 별도로 ‘특제’로 표기해두었다. 즉 이들은 기록에 따라 첨서납증, 중비, 특제로 명칭은 다르지만 그 형태는 왕의 특별임용이라 할 수 있는 ‘특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들을 특제로 제수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국왕이 정치적으로 주요한 문벌 가계를 차출하거나 당대의 별열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조정에 충성한 명망이 있던 가계의 출신을 선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문벌들로 보이며, 후자는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옛 명벌(名閥)들로 보인다.

표12- 헌종 대 ‘특제’ 형식의 비공식 홍문관원의 관직 승진과 거주지, 평균 연령 비교

구분	2품 이상	당상관	참상관	참하관	미상	총 합계
비도당 입록(특제)	10(34.5%)	14(48.3%)	5(17.2%)			<b>29</b>
서울 거주 비율	8(80.0%)	3(21.4%)	1(20.0%)			<b>12(41.4%)</b>
도달 연령	-	45.5세	35.3세	33.3세		

29명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이는 모두 12명, 지방 출신은 17명이다. 이는 「내각록」 입록자가 전원 서울 사람인 것과 대비된다. 서울에 사는

54 『六典條例』 「禮典」 弘文館 總例, “本館有先生案登瀛錄 而以中批差除者 題名于先生案 不得書登瀛錄”.



12명은 대부분 명문 별얼 출신이었다. 안동김씨 김생해계의 김만근, 김좌근, 김병기, 김병계가 속해 있으며, 풍양조씨 조정기계의 조병기나, 청풍김씨 김육계의 김원식, 전의이씨 이기준계의 이현문, 고령신씨 신옥계의 신좌모 등 당시 별얼로 구분되는 가계에 속한 인물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안동김씨가 이러한 ‘특제’의 혜택을 전적으로 받았다.

지방 출신 17명은 경상도 11명, 충청도 3명, 경기도 2명, 강원도 1명이다. 주로 경상도 인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방 출신은 대부분 「문음진신보」에 수록되어 있는 명가의 후손들이었다. 경상도 사람으로, 이휘병, 이휘승, 이만운은 퇴계의 후손이었고, 이기동은 온계 이해의 후손이며, 장응표는 여헌 장현광의 후손, 류광목은 서애 류성룡의 후손, 김두흠은 김대현, 박문현은 박팽년, 손상일은 손소, 박정현은 박이장의 후손으로, 모두 영남의 오래된 명가이자 불천위의 선대를 지닌 이들이었다. 충청도 역시, 송근수는 송시열의 8대손이었으며, 정환익은 정몽주의, 정한연은 정인지의 후손으로 모두 호서의 명가였다.

이들 가운데 송근수를 통해 당시 국왕이 지방 명가의 후손을 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송근수가 문과에 급제하자 그 직후에 ‘승전’으로 부수찬에 제수한 일이 있다. 당시 현종은 “송시열의 집안에서 과거에 합격했다는 소리는 진실로 기쁜 일이다. 신급제 송근수를 부수찬에 제수하라.”고 특명한다.<sup>55</sup> 지방에 사는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승륙(陞六)도 모자라서, 바로 홍문관에 제수된 것이다.

이처럼 특제로 인한 홍문관원 제수에는 서울의 문벌은 물론 지방에 세거한 오래된 명가의 자제들 역시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직에서의 우대는 앞서 보았듯이, 「내각록」에 비해서는 다수 낮지만,

---

55 『承政院日記』 憲宗 14년(1848) 6월 10일, “上命書傳教曰 宋文正家 有此科賢 誠可喜也 新及第宋近洙 副修撰除授”.

공식적으로 『홍문록』에 입학되어 관직 생활을 했던 이들보다는 높은 승진을 보였다. 비공식으로 홍문관에 제수된 사람들은 모두 29명인데, 이 가운데 24명(82.8%)이 당상관에 진출했고, 10명(34.5%)이 정2품 이상으로 승진했다.

물론 이러한 '특제'로 인한 승진이어도 서울과 지방 출신의 관직 진출에는 명확한 한계와 구분이 있었다. 서울 출신 12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8명(66.7%)이 정2품 이상으로 승진했다. 반면, 지방 출신 17명은 15명을 제외한, 단 2명(11.8%)만이 정2품으로 승진했다. 2명은 민유중의 후손 민영위와, 송시열의 후손 송근수였다. 즉, 특제로 지방 출신을 홍문관에 선임한 것 역시도 보여주기식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서울 출신 특제자는 「내각록」 입학자와 유사한 관인적 위상을 보여주었다. 이 두 집단의 가계 역시도 결국 유사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홍문록』은 이전의 위상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당상관을 뽑는 문과 급제 이후 중요한 절차였지만, 공식적인 『홍문록』 입학자는 증가한 상황 속에서 이들과 차별화된, 또 다른 엘리트 진출의 경로가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그 방식으로는 「내각록」에 일찍부터 선별해두거나, 「내각록」에 오르지 못한 이는 왕의 '특제'라는 명목으로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홍문관에 제수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공식적으로 『홍문록』에 오른 이들보다 훨씬 높은 관인적 위상을 지닌 채 승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혜적 요소가 다분한 엘리트 관로를 결국 중앙의 소수 별열 중심으로 제수하고 있었다.

## V. 맺음말

---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헌종 대 『홍문록』 입록자들의 성격과 위상을 살피기 위해 동시기 문과 급제자의 관직 이력과 가계를 비교하여 분석했다. 관직 이력 분석을 토대로 헌종 대 『홍문록』 입록자들의 위상은 이전 시기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많은 비중으로 당상관 진출을 보이였다. 『홍문록』은 조선후기 내내 강력했던 정치엘리트의 모집단으로서 이전과 동일하거나 혹은 더 높은 위상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대 『홍문록』 입록자가 이전에 비해 많아졌던 상황과 당상관의 승진을 역시 이전 시기에 비해 상승했던 정황들을 포착했고, 이는 『홍문록』과 당상관 승진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치엘리트를 선별하는 기능을 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했다. 엘리트로 선별되는 인원이 너무 많았고 그 가계 역시 다양했다.

즉, 19세기는 기존 검토에서 '정치엘리트'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기준인, 승문원의 분관, 『홍문록』 입록, 당상관 승진이라는 3개의 지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이다. 승문원 분관은 유명무실해 지는 추세였고, 『홍문록』 입록과 당상관 승진은 이전에 비해 너무 많은 인원이 그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치엘리트를 추출하는 차별성이 다소 희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9세기 당대 정치엘리트를 추출하는 지표가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승문원 분관보다는 「내각록」의 입록이 참하관에서의 정치엘리트를 판명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홍문록』 입록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보다 비공식 홍문관원, 즉 『홍문록』에 입록되지 않고 홍문관원이 되는 '특제' 형식의 홍문관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본다. 또한, 관직 진출과 승진에서도 당상관보다는

‘정2품 이상 관직’이 보다 차별성 있는 기준이 된다고 보고 이들을 지표로 당대 정치엘리트를 추출했다.

사실 홍문관 관원은 19세기 헌종 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관료의 하나였다. 이는 홍문관원이 되는 것만으로 ‘정2품 이상 관직’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에는 공식적인 『홍문록』 입록 이외에 홍문관 관원이 되는 다른 경로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참하관 당시부터 규장각 관원이 되어 「내각록」에 입록되어 관로를 걷는 방식과 ‘중비특제’의 형식으로 특채를 통해 홍문관 관원이 되는 방식이다. 두 방식에는 모두 『홍문록』 입록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두 방식은 공식적인 『홍문록』을 통해 제수된 관원보다 결과적으로 더 높은 승진율을 보였다. 특히 「내각록」 입록자와 ‘중비특제’ 가운데 서울 출신 인사들은 훨씬 더 높은 관직 승진을 이어갔고, 이들은 ‘정2품 이상 관직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당대 이른바 별얼 명문 가계에 속한 이들로 선대뿐 아니라 부친과 조부 등 살아있는 권력자의 자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시기, 중앙 관료에 진출하는 핵심 정치엘리트 코스로서 공의(公議)에 따른 공식적인 『홍문록』 입록보다 「내각록」 입록과 중비특제에 의한 홍문관원 제수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들 비공식 홍문관원은 19세기 중요한 인사 특징의 하나이자, 세도정치기 엘리트 창출의 새로운 재생산 기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들 특채에 의한 정치엘리트 선발이 당대 세도가에 의해 주도되었는지, 국왕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 둘의 구분이 무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奎章閣志』. 『六典條例』. 『承政院日記』. 『弘齋全書』. 『朝鮮王朝實錄』.  
『登瀛錄』. 『弘文錄』.

### 2. 단행본

김문식·신병주·김태웅, 『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 서울: 소명출판, 2014.

에드워드 와그너(저), 이훈상(역),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지속』. 서울: 일조각, 2007.

역사비평 편집위원회(편), 『정조와 정조 이후』. 고양: 역사비평사, 2017.

차장섭, 『조선후기 별열연구』. 서울: 일조각, 1997.

한영우, 『규장각: 문화정치의 산실』. 파주: 지식산업사, 2008.

### 3. 논문

권기석, 「조선후기 의관 가문의 인원 구성과 계보적 연계」. 『의사학』 제30권 제2호, 2021, 221~275쪽.

김현정, 「17~18세기 전랑제 운영과 1741년 전랑법 개정의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제101권, 2022, 177~222쪽.

나영훈, 「조선후기 관상감 관원의 친족 네트워크와 결속」. 『한국학』 제42권 제3호, 2019, 45~86쪽.

\_\_\_\_\_, 「조선 현종대 문과 급제자의 관직 경로와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제94권, 2020, 197~238쪽.

\_\_\_\_\_, 「조선후기 이조전랑의 인사 실태와 정치적 위상의 변화」. 『동양고전연구』 제86권, 2022, 197~243쪽.

남지대, 「중앙정치세력의 성격」. 한국역사연구회(편), 『조선정치사(상)』. 파주: 청년사, 1990.

\_\_\_\_\_, 「조선후기의 '당쟁'과 청요직」. 이성무(편),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박현순, 「정조대 서울지방의 분화와 지방사족의 등용」. 김인걸(편), 『정조와 정조시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후기 지배 계층의 재생산 구조」. 『한국사학보』 제32호, 2008, 211~243쪽.
- 방성원, 「19세기 중반의 정치상황과 헌종의 국정운영」.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우경섭, 「영·정조대 홍문관 기능의 변화」. 『한국사론』 제39권, 1998, 137~186쪽.
- 원창애, 「문과방목에 담긴 양반사회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시민강좌』 제46권, 2010, 100~118쪽.
- 윤민경,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의 정치적 기반」. 『한국사론』 제61권, 2015, 179~210쪽.
- 이근호, 「영조대 중비 제수의 내용과 성격」. 『진단학보』 제103권, 2007, 111~141쪽.
- 임성자, 「숙종대 『홍문록』과 정치세력의 동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임혜련, 「철종초 순원왕후 수렴청정기의 관인 임용 양상과 권력관계」. 『사학연구』 제110호, 2013a, 285~326쪽.
- \_\_\_\_\_, 「헌종초 순원왕후 수렴청정기의 관인 임용 양상과 권력 관계」. 『역사와담론』 제66권, 2013b, 207~238쪽.
- \_\_\_\_\_, 「순조초기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의 관인 임용양상과 권력관계」. 『한국학논총』 제41권, 2014, 217~246쪽.
- 정상준, 「정조대 규장각 직제 및 관원 이력 분석」. 『한국교육사학』 제44권 제3호, 2022, 119~150쪽.
- 최승희, 「홍문록고」. 『대구사학』 제15·16권 제1호, 1978, 269~288쪽.
- 최이돈, 「조선 초기 법적 친족의 기능과 그 범위」. 『진단학보』 제121권, 2014, 1~26쪽.
- 홍순민, 「정치집단의 성격」. 한국역사연구회(편), 『조선정치사(상)』. 파주: 청년사, 1990.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정치엘리트를 규명하는 일환의 하나로, 『홍문록』에 주목했다. 특히 조선시대 내내 핵심 정치엘리트 관료였던 홍문관원의 위상이 19세기 들어와 변화가 생긴 점에 착안하여, 특히 19세기 현종 대 홍문관원의 관인적 위상을 재검증했다. 그 결과 홍문관 관원은 여전히 조선시대의 주요 관료의 하나였음을 확인하는 한편 이 시기 정치엘리트의 관료 기준을 재정립하는 시도를 했다. 기존에 알려진 문과 급제 이후의 승문원 분관, 『홍문록』 입록, 당상관 승진이라고 하는 정치엘리트 기준은 19세기 들어와 다소 완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승문원보다는 규장각 각신이 되는 「내각록」 입록이 중요했고, 당상관보다는 정2품 이상 관원의 승진이 정치엘리트 판명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함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홍문관원의 위상을 재검토했던 결과, 19세기 홍문관원은 공식적인 『홍문록』 입록을 통한 제수보다는 내각록 입록 이후에 자연히 홍문관원이 되거나 중비특제와 같은 방식으로 홍문관원이 되는, 즉 비공식적 루트의 홍문관원이 증가하고 또 그들이 더 핵심 요직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대부분 명문 별얼 가계의 자손들이었다. 이들 비공식 홍문관원은 19세기 중요한 인사특징의 하나이자, 세도정치기 엘리트 창출의 새로운 재생산 기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투고일 2023. 3. 9.

심사일 2023. 4. 17.

게재 확정일 2023. 5. 11.

주제어(keywords) 홍문록(弘文錄, *Hongmunrok*), 홍문관(弘文館, *Hongmun-gwan*), 문관(文官, *civil servant*), 정치엘리트(*political elite*), 현종(King Heonjong)

## Abstract

### The Status of Civil Servants (文官) and Government Officials of the Hongmun-gwan (弘文館) during the Reign of King Heonjong of the Joseon Dynasty

Na, Younghun

This study focuses on *Hongmunrok* (弘文錄) as part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political elite of the Joseon Dynasty. In particular, the study examines how the status of Hongmun-gwan (弘文館), a key political elite official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changed in the 19th century, and how the political status of Hongmun-gwan was re-verified in the 19th century. The results confirm that Hongmun-gwan remained one of the main government lines of the Joseon Dynasty, while attempting to redefine the standards of political elites during this period.

A review of the status of Hongmun-gwan officials in the 19th century shows that Hongmun-gwan officials naturally became Hongmun-gwan officials or officers in the same way as kings ruled through hereditary succession, rather than being selected through official *Hongmunrok*. They were frequently placed in key positions, and were mostly descendants of prestigious families. These unofficial Hongmun-gwan officials were one of the important personnel characteristics of the 19th century, and were significant as a new way of producing an elite in the 19th century.